

고려정궁 내부 배치의 복원연구

우 성 훈

(동경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이 상 해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주제어 : 고려시대, 수도, 개경, 개성, 궁궐, 정궁, 배치, 복원

1. 머리말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도성 내에 위치하고 있던 시설물들의 종류와 기능의 차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정치체제에 의한 국가의 성립에는 그에 어울리는 도성의 건설이 수반되었다. 그래서 도성은 특정 정치체제의 상징으로서, 정치, 경제, 종교 등, 국가 성립의 중추적인 시설을 중심으로 건설되었다. 그리고 그 정점에 궁궐이 위치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궁궐의 위치와 배치의 변화는, 특정 시대의 변화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고려의 도성, 개경에 위치하였던 여러 궁궐 가운데 정궁¹⁾은, 동아시아 역대의 궁궐과 마찬가지로 개경 내 시설물의 위치를 결정하고 공

간을 구획하는 기준이었다. 이러한 고려정궁의 배치는 중요한 연구 대상의 하나이다. 그것은 수도 개경과의 관계는 물론, 고려의 정궁이 지닌 건축사적 의의와 특성, 그리고 지역적인 특징에 대한 이해가 그것의 배치 검토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고려정궁의 배치는, 궁성 및 황성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궁성 내로 한정하고자 하며,²⁾ 관련 기록이 비교적 풍부하게 남아 있는 11-12세기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궁성 내 건물의 위치와 배치를 중심으로 선행연구의 견해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연구의 과제를 발견한다. 다음으로, 『高麗史』, 『高麗史節要』, 『宣和奉使高麗圖經(이하, 고려도경)』 등의 문헌자료와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하고자 한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밝혀진 건물의 위치와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Sasakawa Scientific Research Grant from The Japan Science Society(No.06-028).

1) 조선시대 만월대로 불렸으며, 대궐, 본궐, 대내 등 다양한 명칭이 기록에 등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동욱(『11, 12세기 高麗 正宮의 건물구성과 배치』(『건축역사연구』 제6권 3호 통권13호, 한국건축역사학회, 1997), pp.23-44)의 견해에 따라 정궁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2) 궁성(문)을 비롯하여 동지 등 황성 내부와 황성(문)에 대한 검토는, 지면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별도의 논고를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배치를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도면화함으로써, 건물유구가 현존재하지 않는 고려정궁의 공간의 이용 방식과 건축적 특징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려 정궁 일대의 훼손이 비교적 덜 진행된 시기³⁾에 제작된 측량지도인, 『京畿道 開城郡 松都面 滿月町 및 高麗町 地籍原圖(이하, 지적원도)』와 『一萬分之一尺縮 開城 地形圖(이하, 지형도)』⁴⁾, 북한의 발굴조사 도면 등을 스캐닝한 후, 발굴 건물지, 등고선, 하천, 가로, 대지의 경계를 트레이스하여 『기본도면』을 작성한다.⁵⁾

이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거리와 규모가 보고되어 있는 각 건물지와 연구 과정에서 파악되는 건물의 위치와 배치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도면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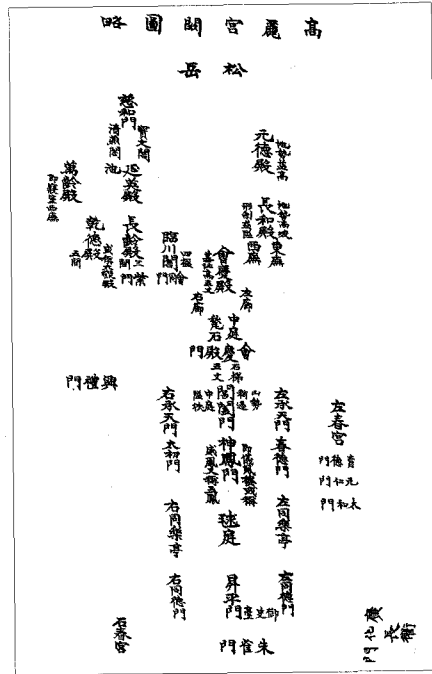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본 연구를 통해, 고려정궁 궁성 내의 건물 위치와 배치가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배치안을 바탕으로 『고려사』 「예지」의 의례를 검토함으로써, 고려정궁의 공간 이용 방식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조선시대 궁궐 의례와 공간의 비교 검토 등과 같은 관련 연구의 기초 자료로도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선행연구의 검토

3) 엄영찬, 「개성지방의 유적유물들에 대한 미일침략자들의 야수적인 파괴략탈행위」(『조선고고연구』 제4호, 사회과학출판사, 1993), p.42.

4) 「고려정과 만월정 지적원도」의 축척은 1:1,200, 각각 24매, 20매로, 1913년에 조사·작성되었다. 「지형도」는, 1916년에 陸地測量部에서 측량하여 1918년 2월 28일 朝鮮總督府에서 간행하였으며, 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을 이용하였다(크기는 46×59cm, 多色).

5) 「지적원도」를 이용한 지도 제작에 대해서는 경기대학교의 이상구교수의 방법에 따랐다. 많은 가르침을 준 이상구교수에게 감사드린다.



<그림 1> 「高麗宮闕圖略(林孝憲, 『松京廣放』)」

1) 林孝憲의 연구

필자가 조사한 범위에서, 고려시대 정궁의 배치에 대한 최초의 검토는 19세기 초 林孝憲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고려도경』과 『고려사』 「예지」의 기록을 토대로 <그림 1>의 「高麗宮闕圖略」을 제시하였다.⁶⁾

이것이 게재되어 있는 『松京廣放』는, 개경과 관련된 기존의 문헌 사료를 광범위하게 수집·정리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⁷⁾ 뿐만 아니라, 회경전 뒤쪽에서 약간 동쪽으로 치우치게 강화진을 표기한 것과 성문과 산성의 잔존 상태를 기록한 것은,⁸⁾ 비교적 충실한 현지 조사

6) 林孝憲, 『松京廣放』5(1832), 「高麗宮闕圖略」(『京畿道邑誌(9)』, 서울大學校 奎章閣, 2000, p.7), 右圖依圖經及禮志彙括爲之者也. 고려정궁의 배치에 대한 임효현의 검토는, 한국의 건축사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자세한 내용은, 「『京畿道邑誌(9)』 해설」(『京畿道邑誌(9)』), pp. 3-22 참조.

8) 『松京廣放』2, 城郭, 卯山古城·昇天山城, 同書 5, 門闕, 塞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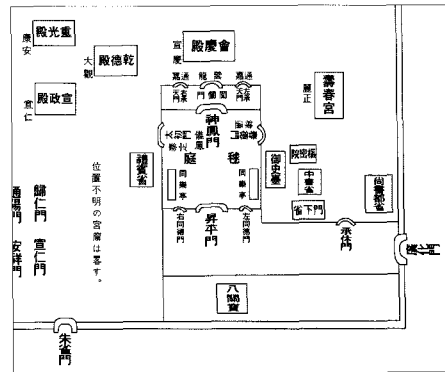
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따라서 임효현이 제시한 도면은, 조선 말기의 고려 정궁의 상황을 일정부분 반영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을 보면, 會慶殿 뒤에 동쪽으로 약간 치우친 축선상에 長和殿과 元德殿을 위치시켰으며, 회경전의 서쪽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臨川閣-長齡殿-乾德殿, 장령전 북쪽에는 延英殿, 그 북쪽에는 慈和門, 자화문 앞에는 동서로 寶文閣과 淸燕閣, 청연각 앞 영연전 서쪽에는 연못[池], 건덕전의 북쪽에는 萬齡殿을 위치시켰다. 건물 명칭 옆에는 규모와 주변 지형, 문, 회랑, 이칭 등을 부기하였다.

주목되는 것은 「廣化門」과 「長衢」가 기타의 건물 명칭과는 표기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것은 광화문과 관청가인 장구의 방향을 의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松岳」과 「朱雀門」의 표기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의 도면을 남북 방향으로 설정한 후, 장구로부터 황성 내로 출입하는 광화문의 방향이 동향하고 있다는 것을 표기 방법을 달리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右同德門-昇平門-左同德門, 太初門-神鳳門-春德門, 右承天門-闔闔門-左承天門의 순서로 남향하게 위치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前間恭作的 연구

前間恭作⁹⁾는 주로 현종대와 인종대 사이의 정궁 건물의 다양한 기능을 검토하였으며, 간략한 배치도를 제시하였다.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건물의 경우, 배치도 내에 명칭만을 표기하였으며,¹⁰⁾ 회경전 및 건덕전 일대 중심 건물의 일부는 간략하게나마 위치 관계가 표기되



<그림 2> 「本闕圖」의 부분(前間恭作, p.6의 도면을 필자가 트레이스)

어 있다(<그림 2>).

광화문에서 창합문 사이의 배치는, 우동덕문-승평문-좌동덕문, 태초문-신봉문-춘덕문, 승천문-창합문-승천문의 순서로, 그리고 태초문과 춘덕문은 임효현과 달리 구정의 동서 벽에 위치시켰다. 궁성의 존재를 무시한 점과, 八關寶, 御史臺의 위치 등 일부 수궁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承休門과 尙書省의 위치에 대한 견해는 선구적이라 할 수 있다.

3) 高裕燮의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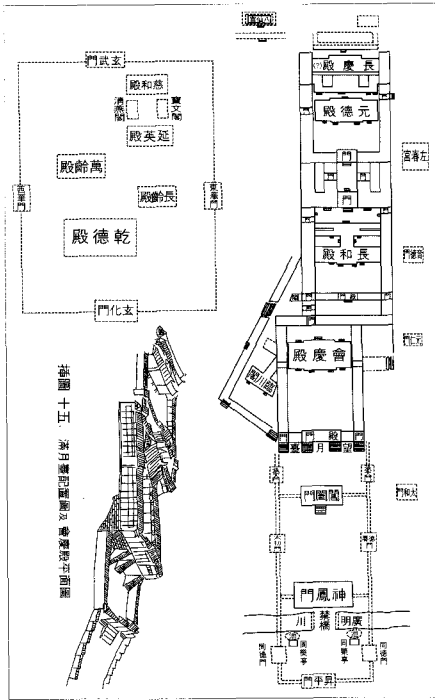
高裕燮¹¹⁾은 사료의 검토와 정궁 유구의 조사를 병행하여 <그림 3>과 같은 배치도를 작성하였다. 확인한 유구는 실선으로, 추정된 부분은 점선으로 표기하고, 각 건물지에 명칭을 부여하였다. 실선으로 표기한 부분의 경우 북한의 발굴조사 도면과 일치하고 있으며, 특히 회경전 일대의 문 위치, 그리고 장화전과 원덕전의 관계 등 북한의 발굴조사 도면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고려정궁의 배치를 이해하는 데 크게 참고가 된다.

회경전 일대의 건물 위치는, 임효현과 동일한 반면, 승평문에서 회경전문 사이의 배치에

9) 前間恭作, 『開京宮殿簿』(『朝鮮學報』 第26輯, 朝鮮學會, 1963), pp.1-55. 수고는 大正甲子 즉 1924년에 작성되었다.

10) 인종 16년 개칭된 명칭은 적색으로 부기되어 있다.

11) 高裕燮, 『韓國建築美術史草稿』(考古美術資料 第六輯, 考古美術同人會), 1964.



<그림 3> 「萬月臺配置圖及會慶殿平面圖」(高裕燮, 『韓國建築美術史草稿』, 插圖15를 바탕으로 필자가 트레이스)

대해서는 앞의 두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즉, 승평문, 신봉문, 창합문, 회경전 전문을 연결하는 남북 방향의 동서 담장에, (좌우)등덕문, 춘덕·태초문, (좌우)승천문을 각각 동서 방향으로 위치시키고 있다.

4) 북한의 발굴 조사와 연구

고려정궁의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는 북한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발굴조사와 연구 성과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회경전과 그 서쪽 일대는 1973년에서 1974년 사이에 발굴조사되었으며, 『조선유적유물도감』에 개별 건물에 대한 상세한 발굴조사 도면과 배치도¹²⁾가 실려 있다(본 논문 3장 <그림 7>). 금원, 내전 일대를 비롯한 회경전

서쪽 일대의 건물지가 광범위하게 조사되었으며, 회경전과 서북전축군터 일대는 상세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이 도면을 통해 확인된다. 이후 1994년에 장화전 북쪽의 원덕전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와 도면이 발표되어¹³⁾, 지속적으로 고려 정궁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회경전 서쪽 일대에 대한 더 이상의 발굴조사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현재 입수 가능한 것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고 상세한 발굴조사 결과가 <그림 7>이며, 북한에서 이루어진 관련 연구와 개별적인 후속 발굴 역시 이 도면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 도면을 기준으로, 개별조사 보고에 기록된 각 유구의 규모와 유구 사이의 거리를 참고하면서 발굴 건물의 위치와 명칭의 비정, 그리고 배치의 복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고려정궁에 사용된 척도를 검토한 장상렬¹⁴⁾의 연구 결과는, 고려정궁의 변화 과정을 실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될 뿐만 아니라,¹⁵⁾ 건물 복원시 그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정찬영¹⁶⁾의 논문은, 궁성 내 일부 건축물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의 북한에서 이루어진 발굴조사 결과는, 개별 지역에 대해 약식으로 보고되어 있어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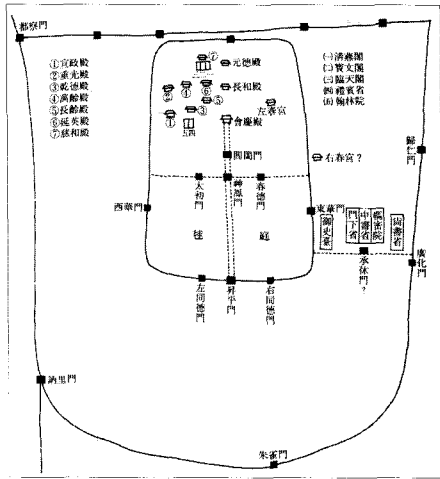
13) 한인호, 「만월대중심건축군의 원덕전터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제3호), 1994, pp.12-16.

14) 장상렬, 「만월대 회경전건축군에 쓴 자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제3호), 1989, p.38 및 pp.44-48 · 「만월대 장화전건축군의 배치와 거기에 쓴 자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제4호), 1986, pp.35-38 · 「고려왕궁-만월대 건축에 쓴 측도기준」, (『고고민속문물집(Ⅱ)』,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pp.102-127.

15)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창현, 『고려개경의 구조와 그 이념』(신서원, 2002), pp.236-237 참고.

16) 정찬영, 「만월대유적에 대하여(1)」, (『조선고고연구』 제1호), 1989, pp.19-21. 동지나 성벽에 대한 연구는 제외한다.

12)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0(외국문종합출판사, 1991), pp. 136-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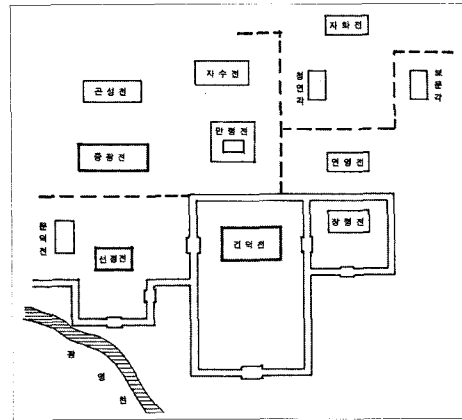
<그림 4> 「궁성·황성내의 궁전과
중요 관해」(박용운, p.38)

려정궁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현재 고려정궁에 대해 직접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각 유구의 규모와 유구 사이의 거리에 대한 내용은, 부분적으로 진행된 발굴 결과를 종합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자 정궁 전체의 배치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5) 朴龍雲의 연구

朴龍雲¹⁷⁾은 개경 내 여러 시설을 검토한 후 궁성 및 황성 일대에 대한 간략한 배치도를 제시하였다. 그의 연구는 고려의 수도 개경과 정궁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하는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박용운은 신봉문을 경계로 크게 두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궁성이 구정을 위요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회경전 서쪽에 임천각, 서북쪽에 건덕전, 그 동쪽에 장령전, 북쪽에 만령전을 두었으며, 건덕전과 만령전의 서쪽에 선정전과 중광전을 위치시키는 등 일대의 건물 위치를 상세하게 비정하는 성과



<그림 5> 「건덕전 주변 건물 배치
개념도」(김동욱, p.35)

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右春宮을 회경전 동쪽에, 어사대를 동화문 동쪽에 위치시킨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창합문에서 승평문에 이르는 일대의 배치는, 구정 남쪽에 좌동덕문-승평문-우동덕문을, 북쪽에 대초문-신봉문-춘덕문을 위치시키고 있다.

6) 김동욱의 연구

이상의 선행 연구가, 회경전 서쪽 일대에 대한 연구가 건물 위치에 대한 비정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면, 김동욱¹⁸⁾은 11, 12세기 고려정궁의 건물 구성과 배치, 그리고 영역 구분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이와 함께 제시한 「11, 12세기 고려 정궁 건물 기본 배치개념도¹⁹⁾」는, 정궁의 전체 공간의 영역을 정밀하며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성과를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진행된 고려정궁이 지닌 건축사적 의의와 배치의 특성에 대한 검토는, 한국 건축사에서 차지하는 고려정궁의 특성을 분명하게 드러낸 선구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승평문에서 회경전문 사이의 배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했을

17) 朴龍雲, 『고려시대 開京 연구』(一志社), 1996. 배치도는 p.38, <지도 2> 참조.

18) 김동욱, 앞의 논문, pp.23-44.

19) 김동욱, 위의 논문, p.38, 그림-4 참조.

뿐이며, 일부 건물의 상대적 위치 관계와 영역 구분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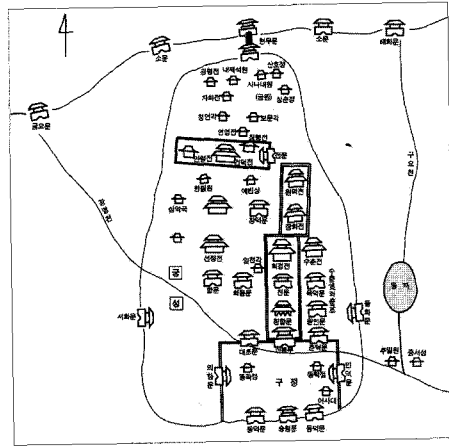
7) 김창현의 연구

고려의 정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김창현²⁰⁾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광범위한 관련 문헌사료와 더불어 북한에서 진행된 발굴과 연구 결과를 치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고려 정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경의 도시구조 전체의 배치 복원과 풍수론을 통한 의미의 해석 등, 고려의 수도 개경과 관련된 연구사의 일대 획을 그은 것으로 판단되며, 역사학계는 물론 건축사학계에서도 참고 가능한 중요한 연구 성과로 판단된다.

김창현의 연구 결과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서북건축군터를 건덕전 일대로 비정하고, 건덕정을 위요하는 담장 동쪽에 전문을, 그 내부 동쪽에 장령전, 서쪽에 만령전을 위치시키고 있는 것이다. 문헌 연구와 발굴 결과를 접목시키려는 시도로 높게 평가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경령전과 자화전을 비롯한 많은 건축물이 금원 일대에 위치하게 되었다.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정 일대의 배치에서는, 동덕문-승-동덕문, 대초문(태초문)-신봉루(신봉문)-춘덕문의 순으로 위치시켰다. 창합문 좌우의 승천문은 표기하지 않았으나, 구정의 동쪽 담장에 인덕문을, 서쪽 담장에 의창문을 추가한 것은 구정 일대의 배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연구 성과로 판단된다.

이상으로 고려 정궁의 궁성 내 건물의 위치와 배치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하여 파악된 연구 과제를 정리하면 다



<그림 6> 「개경궁성도」(김창현, p.266)

음과 같다.

회경전 일대의 배치에 대해서는 커다란 이견이 없으므로 본 논문도 이에 따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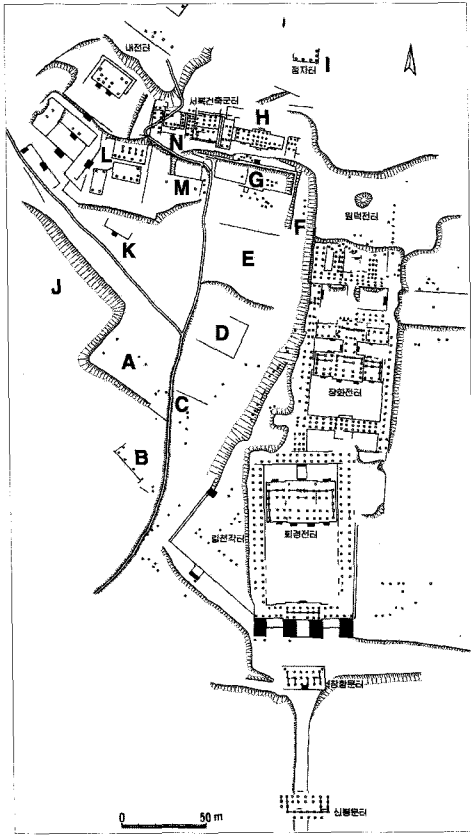
건덕전을 중심으로 한 회경전 서쪽 일대의 경우, 발굴조사를 통해 많은 건축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일부 건물지에 한하여 그 명칭이 추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건덕전의 위치와 영역 구분 등에서 이견이 확인되므로, 발굴조사된 건물지에 대한 명칭 비정, 문헌과 발굴조사 결과를 통한 배치의 보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창합문에서 승평문에 이르는 일대의 배치의 경우 연구자 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입문의 위치와 방향 및 배치가 잘못 이해된 부분도 적지 않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궁성 내 시설물의 위치와 배치

본 장에서는 회경전과 건덕전을 시작으로, 건덕전에서 승평문 사이의 출입문 순서로 검토하고자 하며, 절의 구분은 서술의 편의와 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다. 건물명은 인종 16(1138)년 전각의 명칭이 개칭되

20) 김창현, 『고려개경의 구조와 그 이념』 (신서원), 2002. 궁성 내부에 관한 내용은, 同書, pp.219-294 참조.



<그림 7> 발굴조사 배치도(『조선유적유물 도감』, p.140. A, B, C 등은 필자에 의함)

기 이전의 것을 기준으로 표기하고자 하며, 개칭 이후에 기록된 사료를 인용하거나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관전(건덕전)」, 혹은 「건덕전(대관전)」과 같이, 괄호 내에 이칭을 병기하고자 한다. 아울러 서술의 편의를 위해, 발굴조사 도면인 <그림 7> 위에 건물지와 초석 및 기단열이 확인된 곳, 서술상 필요한 곳에 알파벳으로 표기한 후 건물지의 명칭과 위치 비정 및 배치의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3-1. 회경전 및 건덕전 일대의 배치

(1) 회경전 일대의 배치

회경전 일대의 배치는, 임효헌을 비롯한 대부분의 연구자의 견해가 동일하며, <그림 7>의 발굴조사 배치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 신봉문과 창합문을 지나 계단을 올라가면 회랑으로 둘러싸인 회경전이 일곽이 자리잡고 있었으며, 그 뒤에 장화전이 위치하였다. 장화전 뒤쪽의 원덕전은, 고유섭의 배치도를 바탕으로 1994년에 보고된 발굴 도면²¹⁾을 추가함으로써 복원할 수 있으며, 회경전 서쪽에는 임천각이 위치하였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2) 건덕전 위치와 영역 구분의 문제

고려 정궁의 영역은, 건덕전·회경전·좌춘궁 일대와, 그 남쪽의 구정 및 좌우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며, 회경전 일대와 건덕전의 위치관계는 회경전 서쪽 일대의 건물 위치와 배치를 규명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건덕전의 위치에 대해서는, 임천각 서쪽 일대로 보는 견해와 서북건축군터 일대로 보는 견해로 구분되어 있다. 서북건축군터에 건덕전이 위치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금원 일대에서 행랑 수집 칸을 포함하는 내제석원²²⁾처럼, 개별 건물과 이들을 위요하는 행랑을 건립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지형을 변경시킨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그림 11> 참조).

이와 함께, 3-2에서 언급하듯이, 건덕전은 회랑으로 위요된 전정에서 각종 의례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서북건축군터에 면한 남쪽에 경사지가 전개되고 그 남쪽에 다른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다.²³⁾ 이것은, 서북건축군터가 회랑으로 위요된 의례 공간을 형성할 만큼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힘든 곳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같이 임천각 서쪽 일대에 건덕전이 위치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21) 한인호, 앞의 논문, p.14의 그림.

22) 『高麗史』 卷第127 列傳40 叛逆1 李資謙, …是日宮禁焚蕩惟山呼賞春賞花三亭及內帝釋院廊廡數十間….

23)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앞의 책, p.165의 사진 및 발굴도면, p.140의 배치도 참조.

한편 건덕전과 장령전 그리고 만령전의 영역 구분 역시, 하나의 영역이었다는 견해와 개별적으로 구분되어 있었다는 견해로 구분되고 있다. 이들 건물이 하나의 영역 내에 위치했다는 견해는, 「長齡殿在乾德之東紫門內²⁴⁾」라는 기록을, 「장령전은 건덕전 동쪽(에 위치한) 자문 안에 있다」고 해석하는 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²⁵⁾

그러나, 「臨川閣在會慶殿西會同門內」²⁶⁾를, 「임천각은 회경전 서쪽, (회경전의 출입문이 아닌) 회동문 안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듯이, 「長齡殿在乾德之東紫門內」는 「장령전은 건덕전 동쪽, (건덕전의 출입문이 아닌) 자문 안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김동욱 등의 연구와 같이 만령전, 장령전, 건덕전은 별도의 회랑으로 위요된 개별적인 영역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3) 건덕전과 장령전 일대의 배치

임천각은 회경전 서쪽, 회동문 안에 있다. 건덕전은 회경전 서북쪽에 있는데 그 제도는 5칸으로 회경전에 비해 조금 작다. 뒤[북]에는 만령전이 있으며 兩廡에 비빈과 시녀들이 빙 둘러 거처한다. 건덕전의 동쪽, 자문 안에는 장령전이 있으며, 그 제도는 3칸으로 만령전에 비해 화려하지는 않지만 규모가 크다. 중국 사신이 고려를 방문한다는 소개서를 접수하거나, 상인들이 바치는 물품을 받고 보상하는 일이 이곳에서 진행되었다.²⁷⁾

24) 『高麗圖經』, 卷第6 宮殿2 長齡殿.

25) 이로 인해 김창현은 건덕전 일대의 공간 구조를 동향으로 이해하고 『高麗圖經』, 卷第5 宮殿1, 萬齡殿, 萬齡殿在乾德之後는, 동쪽의 전문을 진입하여 건덕전을 거친 「後」 그 「서」쪽에 만령전이 위치하는 것으로 표기한 것 같다. 『高麗圖經』, 卷第5 宮殿1, 長和殿과 元德殿의 長和殿在會慶之後 및 元德殿在長和殿之後也和 같이, 「後」는 「北」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26) 『高麗圖經』, 卷第6 宮殿2 臨川閣.

27) 이상, 『高麗圖經』 卷第5 宮闕1 乾德殿·萬齡殿 및 卷第6 宮闕2 長齡殿·臨川閣 참고.

임천각은 회경전 서남쪽 삼각형 대지에 위치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회경전 및 임천각과 건덕전 및 장령전 사이에 다른 건물이 위치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 이와 함께 건덕전이 회경전 서북쪽에 위치한다는 기록을 참고하면, 「임천각터」 서쪽, <그림 7>의 A, B, C 지역 일대에 건덕전과 장령전 등이 위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가운데 B 건물지가 건덕전이 있었다면, C 지역에 장령전이, C 지역이 건덕전이 있었다면 D 건물지에 장령전이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배치는, 「만령전이 건덕전 뒤에 있다」는 기록이나 「장령전이 건덕전 동쪽, 자문 안에 있다」는 기록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리고 중국의 상인이 물품을 바치고 보상받는 공간이 대내와 가깝게, 더군다나 정전인 건덕전 뒤에 위치했을 것 같지도 않다.

따라서 A 건물지를 건덕전, 그 동쪽의 B 건물지를 장령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실제로 <그림 7>의 B 건물지를 살펴보면, 기단과 주칸의 넓은 초석 배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이 「장령전은 3칸이며 만령전에 비해 화려하지 않지만 규모가 크다」고 기록한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장령전을 개칭한 천령전의 문으로 생각되는 千齡門²⁸⁾과 그 西廊後壁에 위숙군이 배치되고 있다.²⁹⁾ 천령문 즉, 장령전의 출입문과 회랑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건덕전 앞쪽 옆에는 禮賓省이, 서쪽에는 翰林院이 위치하고 있었다.³⁰⁾ 예빈성은 건덕전 동쪽에 있었던 장령전의 남쪽, 한림원은 건덕전과 그 서남쪽의 광명천 사이에 위치했을 것

28) 『高麗史』 卷第56 志10 地理1. 卷第16 世家16 仁宗2 十六年五月庚戌에는 長齡改奉元으로 기록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리지의 기록을 따르고자 한다.

29) 『高麗史』 卷第83 志第37 兵3 衛宿軍.

30) 『高麗圖經』 卷第16 臺省.

으로 짐작된다.

희종 4(1208)년, 옛 제도에 따라 예빈성에서 「老人賜設儀」가 행해졌는데, 禮賓省 主廳에 왕의 임시휴게소가 설치되었으며, 재신, 추밀관 등 초대된 사람들은 左右俠廳과 連廊 등에 나누어 앉았다.³¹⁾ 이를 통해 주청과 회랑이 갖춰진 예빈성 일곽의 모습이 확인된다.

한림원의 경우, 관료들이 유숙하였다거나³²⁾ 송의 승려나 북조의 사신을 접대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된다.³³⁾ 주청과 더불어 관료들이 유숙할 수 있는 부속 건물, 그리고 『고려사』 「예지」나 『고려도경』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신 등을 접대할 때에 사용되던 회랑이³⁴⁾ 한림원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연영전과 자화전 일대의 배치

장령전 북쪽에 위치한 延英殿閣[연영전]은 5칸인 건덕전과 제도 및 규모가 비슷하였으며, 그 북쪽에는 자화전이 있었다. 자화전 앞 서쪽의 청연각이 禁中[大內]에 위치하여 학사들의 출입과 수직이 불편한 관계로 대내의 측면 즉 연영전의 북쪽이자 자화전의 남쪽에 보문각을 새로 지었다. 紅樓 아래 南廊을 고쳐 精義堂이라 하고, 그 좌우를 휴식하는 곳으로 삼았다가 보문각으로 개칭한 것이다. 이 일대에는 돌을 쌓아 산을 만들고 물을 끌어들여 연못[沼]을 만들었다.³⁵⁾

앞에서 검토하였듯이, <그림 7>의 B 건물지가 장령전이었다면, 그 북쪽의 연영전과 보문각은 D, E, F, G 지역 일대에 위치하게 된다. 이 가운데, D 건물지에서 G 건물지 남쪽 기단열 까지 약 50m 구간, 즉 E 지역에서는 건물지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곳에 가산과 연못이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E 지역 남쪽의 D 건물지를 연영전, 북쪽 기단열 일대를 홍루 남쪽의 행랑과 보문각이 위치했던 곳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실제로 D 건물지의 경우, 「연영전이 5칸인 건덕전과 규모가 비슷하였다」는 기록과 부합하는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있어, 앞의 추정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G 건물지가 보문각 북쪽에 위치하였다는 자화전일까. 그렇지 않다. 보문각 북쪽에 위치하였던 홍루와 이웃하면서 단급, 즉 대내와 이어진 곳에 내제석원이 위치³⁶⁾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정리하면, 보문각 북쪽에 홍루, 그 북쪽에 자화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보문각과 자화전 사이에 내제석원이 홍루와 이웃하며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F 건물지를 홍루, G 건물지를 내제석원, H 건물지를 자화전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내제석원이 동쪽의 홍루와 이웃하며 대내와 이어져 있었고, 홍루의 남쪽에 보문각이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내제석원의 북쪽과 서쪽이 대내가 된다. 이것은 내제석원의 북쪽에 위치

31) 『高麗史』 卷第68 志22 禮10 嘉禮 老人賜設儀, 熙宗四年十月丙子, …於禮賓省主廳設王幄 命宰福坐於左俠廳…三品員坐於左俠連廊…

32) 『高麗史』 卷第7 世家7 文宗1 七年九月甲申, …今制詰員僚請於翰林院寓宿制可·卷第17卷 世家17 毅宗1 六年夏四月辛巳, …諫官遂留宿翰林院.

33) 『高麗史』 卷第11 世家11 肅宗1 元年九月丁未·卷第65 志19 禮7 賓禮 迎北朝起復告勅使儀.

34) 『高麗圖經』 卷口第27 館舍 順天館, …外廊三十間不置他物 唯館會 則列中下節飲席焉.

35) 이상은, 『高麗圖經』 卷第6 宮闕2 延英殿閣, 延英殿閣在長齡之北制度小大略如乾德…又其北曰慈和…前建三閣曰寶文以奉累聖所錫詔書西曰清燕以藏諸史子集…故於大內之側延英書殿之北慈和之南別創寶文清燕二閣…文

閣…欄楯之外疊石成山庭除之際引水爲沼… 『高麗史節要』 卷之8 睿宗文孝大王2 十一年十一月十一月· 『高麗史』 卷第76 志30 百官1 寶文閣, …以清燕閣在禁內學士直宿出入爲難就其旁別置閣改官號曰寶文…仍修紅樓下南廊爲學士會講之堂賜號曰精義就其左右爲休息之所 및 卷第96 列傳9 金仁存 등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36) 『陝川 靈巖寺 寂然國師(932-1014) 慈光塔碑文』(李智冠,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 2, 伽山佛教文化研究院, 2000(1995)), p.190. …後乃請住於內帝釋院此寺也境比紅樓 地連丹禁…

한 자화전이 내전 일대 즉 대내에 위치했다³⁷⁾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결국 자화전의 앞쪽, 즉 내제석원의 남쪽에 보문각이 있었으므로, 내제석원의 서쪽에 청연각이 위치하게 된다. 앞에서 검토한 것처럼, G 건물지가 내제석원, 그 남쪽 기단열 일대가 행랑과 보문각지로 추정되므로 <그림 7>의 M 건물지가 청연각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高麗史』 卷第61 志15 禮3 「景靈殿正朝端午秋夕重九親奠儀」는, 내전에서 출발하여 集禧殿에서 의례를 진행한 후 景靈殿으로 이동하여, 태조실인 제1실부터 제5실까지 차례로 들어가 선대 국왕의 진영을 알현한다. 경령전은 내부가 각 실별로 구획되어 있었으며, 집희전(자화전)과 함께 내전 일대에 위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에서, 내전 일대에 위치하면서 내부가 구획되어 있는 L 건물지가 경령전으로 판단된다.³⁸⁾

한편, 禁苑에는 山呼亭, 賞春亭, 賞花亭이 있었다.³⁹⁾ 상화정의 용도는 확실치 않으며, 산호정에서는 醮祭와 기우제, 그리고 佛骨의 안치와 羅漢齋 등 주로 佛事와 관련된 행사가 열렸다.⁴⁰⁾ 상춘정에서도 초제나 기우제, 消災道場 등 불사와 관련된 행사가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주로 각종 연회가 이곳에서 열렸다.⁴¹⁾ <그림 7>에서 내전터와 서북건축군터, 그리고

원덕전터 북쪽 일대가 금원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곳에 위치한 I 건물지는 상춘정으로, 그리고 김동욱이 만령전 북쪽에 위치시킨 慈壽殿은 서북건축군터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⁴²⁾ N 건물지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5) 선정전의 위치와 배치

『고려사』 「세가」에는 1138년 5월 선정전을 혼인전으로, 이와 달리 「지리지」에는 광인전으로 개칭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후 선정전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다만, 重罪의 판결 등 선정전과 유사한 역할을 선인전이 담당하였다는 것이 확인되므로,⁴³⁾ 본 논문에서는 선정전이 선인전으로 개칭된 것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⁴⁴⁾

정전인 건덕전과 편전인 선정전은 남북으로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건덕전 북쪽에는 만령전이 위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건덕전 서쪽에 선정전을 위치시킨 김동욱의 견해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그 위치는 <그림 7>의 A 건물지 서쪽인 J 지역에 해당한다.

김동욱이 제시한 <그림 5>의 배치 개념도를 보면, 선정전과 건덕전이 회랑 및 선정전(선인전) 동문(東紫門)으로 보이는 문을 공유하고 있다. 선정전과 건덕전이 이 문을 공유할 경우, 東西門을 이용하여 대관전(건덕전)으로 들어가는 관리들과 兩部樂官들은⁴⁵⁾ 선정전 마당을 통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선정전과 건덕전 사이에 완충 공간이 존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실제로 건덕전지로 생각되는 <그림 7>의 A 건물지와 그 서쪽의 J 지역이 축대에 의해 구분되어 있다는

37) 『高麗史』 卷第61 志15 禮3 景靈殿.

38) 정찬영(앞의 논문, p.21)도 같은 견해이다.

39) 『高麗史節要』 卷之9 仁宗恭孝大王1 四年春二月.

40) 산호정의 불사·초제는, 『高麗史』 卷第12 世家12 睿宗1 元年五月戊戌·二年冬十月甲子, 불골안치·기우제는 卷第14 世家14 睿宗3 十五年五月戊辰·十六年閏(五)月壬申, 나한제는, 卷第19 世家19 毅宗3 二十三年三月己未.

41) 상춘정의 곡연은, 『高麗史』 卷第8 世家8 文宗2 二十四年夏四月辛酉朔, 초제는, 卷第13 世家13 睿宗2 四年三月戊申, 소제도장은, 卷第14 世家14 睿宗3 十六年五月甲寅, 기우제는, 卷第18 世家18 毅宗2 十二年夏四月乙巳.

42) 정찬영, 앞의 논문, p.21.

43) 『高麗史』 卷第15 世家15 仁宗1 卽位年八月庚寅·卷第18 世家18 毅宗2 七年八月丙寅.

44) 前問恭作, 앞의 논문, p.13·김동욱, 앞의 논문, p.29.

45) 『高麗史』 卷第65 志19 禮7 嘉禮 冊太后儀大觀殿上冊.

사실이, 위의 추정을 뒷받침해 준다.

한편 선정전 남문[南紫門]에서는 여진인이거나 북계의 변장 39명을 접견하기도 하였고, 남문랑에서는 내외의 중형을 판결하였다.⁴⁶⁾ 39명을 남문 내에서 접견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므로, 국왕은 남문에, 외국 사절은 그 외부에 위치한 상태에서 접견하였을 것이다. 중형의 판결이나 외국 사절의 접견이, 국왕이 남문이나 남문랑에서 선정전 마당 쪽으로 북향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며, 남쪽을 향했을 경우, 개방된 공간에서 진행되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결국, 선정전 남문과 남문랑의 남쪽에 외부와 차단된 공간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이 공간을 향하여 국왕이 남문이나 남문랑에 자리한 상태에서 사신의 접견이나 중형의 판결이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경우, 선정전 남문 남쪽의 공간으로 진입하기 위한 또 다른 문이 필요한데, 宣宗이 문무백관과 함께 상복을 입고 선정전으로 가서 順宗을 제사지냈으며, 이것이 끝난 후 문무백관이 西上閣門에 이르러 왕을 위로하였다는 기록⁴⁷⁾이 참고가 된다. 이것을, 선정전 영역의 남쪽에 위치한 서상합문에서 대기하던 백관들이, 선정전에서 제사를 마치고 남문을 나서는 선종을 맞이하여 위로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선정전 일대에서는 남문랑, 동자문, 남자문, 말문 등의 시설이 확인된다.⁴⁸⁾

(6) 중광전의 위치와 배치

『고려사』, 『고려사절요』, 『고려도경』에서 중광전 위치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으며, 김동욱과 정찬영의 견해를 참고할 수 있다.

46) 『高麗史』 卷第13 世家13 睿宗2 四年六月庚子, 秋七月丙午, 八月乙酉, 五年春正月乙卯.

47) 『高麗史』 卷第10 世家10 宣宗 卽位年十月戊戌.

48) 『高麗史』 卷第83 志37 兵3 看守軍·圍宿軍.

김동욱은 선정전 북쪽에 중광전을 위치시키고 있다(<그림 5> 참조). 이곳은 <그림 7>의 K 건물지에 해당한다.

중광전에는 翼室, 西樓, 南門, 南廊, 東紫門, 東末門 등이 있었고, 南樓에서는 격구를 관람하고 서여진 추장 등 40여명을 접견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활쏘기, 군사나 국마의 사열, 大會宴의 개최, 연동회를 위한 綵樓燈山⁴⁹⁾의 설치가 가능할 정도의 공간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중광전이 K 건물지 일대에 위치하였다고 보기에는 대지와 건물지의 규모가 협소하다. 이와 함께, 새로 지은 중광전 남문이 重房의 동쪽 모퉁이에 있었다⁵⁰⁾는 기록을 통해, 중광전 서쪽에 중방이 위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 건물지가 중광전이었다면 중방은, 비빈의 침소인 만령전보다 내전과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하게 된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관청이 비빈의 침소보다 내전에 더 가깝게 위치한 사례는 좀처럼 확인되지 않는다.

김동욱이 편찬인 선정전 북쪽에 중광전을 위치시킨 것은, 중광전을 국왕의 침전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이다.⁵¹⁾ 중광전에서 국왕이 사망하는 등 침전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국왕의 즉위식이나 외국 사신의 접견, 그리고 신하들과의 연회도 행해지는 등 편전으로도 기능하였다. 이것은 「重光便殿」이라는 기록⁵²⁾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된다. 즉 고려정궁은, 정전이 회경전과 건덕전 2개로 구성되

49) 중광전의 翼室은, 『高麗史』 卷第5 世家5 德宗 二十二年五月辛未, 綵樓燈山은, 卷第9 世家9 文宗3 二十七年二月丁酉, 西樓·南廊은, 卷第12 世家12 睿宗1 元年秋七月癸丑·三年八月己卯, 大會宴·南樓·南門·東紫門은, 卷第13 世家13 睿宗2 四年二月己丑·五年春正月庚申·壬戌·五月辛亥, 東末門은, 卷第83 志37 兵3 圍宿軍.

50) 『高麗史』 卷第20 世家20 明宗2 十年十一月壬子.

51) 김동욱, 앞의 논문, p.26.

52) 『高麗史』 卷第13 世家13 睿宗2 四(1109)年八月丁亥.

<표 1> 『고려사』 「예지」의 의례 동선

의례 동선	출전
대관전-홍례문-의봉문-승평문-재궁	『高麗史』 卷第59 志13 禮1 吉禮大祀, 圓丘 饗駕出宮 志14 禮2 太廟 饗駕出宮 · 卷第62 志16 禮4 吉禮中祀, 籍田 饗駕還宮
선인전-대관전-이빈문-태정문-승평문-진전	『高麗史』 卷第64 志18 禮6 凶禮 先王諱辰眞殿酌獻儀
선인전-대관전-전문-태정문-여경문-여정문-전정-여정전	『高麗史』 卷第66 志20 禮8 嘉禮 冊王太子儀 · 王太子納妃儀 降使, 卷第70 志24 樂1 雅樂 用鼓吹樂節度
선인전-대관전-전문-합문-의봉문-구정-태정문-대관전	『高麗史』 卷第68 志22 禮10 嘉禮 老人賜設儀 · 卷第69 志23 禮11 嘉禮雜儀 仲冬八關會儀 大會日坐殿
강안전-전문-태정문-승평문-봉은사 진전	『高麗史』 卷第69 志23 禮11 嘉禮雜儀 上元燃燈會儀 小會日謁祖眞儀

어 있었던 것처럼, 편전 역시 선인전과 중광전 2개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중광전이 편전인 선정전과 병렬적인 관계였다 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정찬영은, 「중광전 가까운 서쪽에는 지금 보 문각과 청연각 자리가 남아 있으며 그 곁에 사루 자리도 남아 있다. 그리고 중광전 북쪽에는 축대를 쌓고 100m 거리의 한단 높은 자리에 궁전들이 나란히 섰던 자리가 있다. 이 축대의 서쪽 끝에 있는 자름자름한 구획으로 口자로 된 건물터는 경령전터이다. 경령전 동쪽의 집자리를 비롯하여 이미 발굴한 집자리들은 자수전(집회전)으로 추측된다⁵³⁾」고 하였다.

정찬영이 경령전터로 추정한 곳은, 앞에서 검토한 것처럼 <그림 7>의 L 건물지로 판단 된다. 그렇다면, 자수전(자화전)으로 추측된다고 하는 집자리는 서북건축군터이거나 <그림 7>의 M, G, E, F 건물지에 해당하게 된다. 그리고 중광전 서쪽에 보문각과 청연각 자리가 있다고 했으므로, 정찬영이 설명한 중광전의 위치는 E, G, F 지역 일대로 압축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북쪽에 축대를 쌓았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G와 F 건물지이다. 이곳에서 100m를 계측해 보면, 동쪽으로는 원덕전터 동쪽, 서쪽으로는 경령전터 서쪽의 내전터, 남쪽으로는 A, C, J 지역, 북쪽으로는 서북건축군터와 원덕전터 북쪽의 건물지를 지나 금원에 이르는데, 이곳에서는 정찬영이 언급한 경령전

동쪽의 한단 높은 자리에 나란히 서 있는 궁전들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것은, 중광전 서쪽에 보문각과 청연각이 있다고 한 정찬영의 언급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⁵⁴⁾

결국, 경령전 동쪽의 한단 높은 자리에 나란히 선 궁전들은 서북건축군터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곳으로부터 100m 거리의 중광전 북쪽 축대는 <그림 7>의 J와 K 사이의 축대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정전과 병렬적인 관계인 중광전은 선정전의 서쪽에 위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3-2. 합문과 회동문의 위치

『고려사』 「예지」를 보면, 대관전(건덕전), 선인전(선정전), 강안전(중광전)에서 시작되는 의례는, 殿門, 興禮門(昌德門), 利賓門(會同門), 泰定門(太初門) 등을 거치는데, 이를 간단히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이를 통해 「대관전-대관전문-이빈문-태정문」, 「대관전-대관전문-합문-의봉문」, 「대관전-홍례문-의봉문」의 순서로 위치하였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대관전 전문, 홍례문, 합문, 이빈문, 태정문, 의봉문의 위치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의례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창덕문의 경우, 「圓丘 饗駕出宮」 등 대관전에서 시작되는 의례와 달리 강안전에서 시작되는 의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53) 정찬영, 앞의 논문, p.21.

54) 중광전은 원덕전의 오기가 아닌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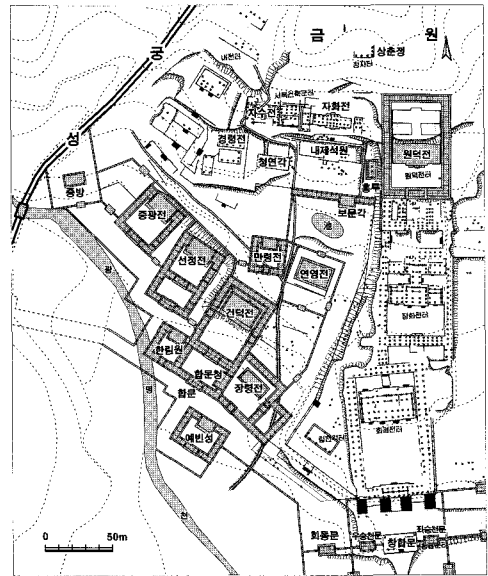
대관전의 전문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⁵⁵⁾

<표 1>의 「老人賜設儀」에 의하면 대관전 전문과 의봉문 사이에 합문이 위치하였다. 합문과 건덕전 전문의 관계는 「迎北朝詔使儀」를 통해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합문 밖」에 와서 기다리던 북조의 사신은 건덕전에 나와 앉은 국왕의 명에 따라 「中門으로 들어와, (건덕전) 전문 서편에 가서 선다. 그러면 국왕이 「전문 밖 동편으로 나가서」 사신과 읍하고 (전문을 통해) 전정으로 「들어온다」.⁵⁶⁾ 북조의 사신이 들어 온 中門이 합문의 중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왕이 사신을 접견하는 전문 밖 합문 안의 공간은 閤門庭으로 기록되어 있으며,⁵⁷⁾ 강안전(중광전)에서 출발하는 「元燃燈會儀 小會日謁祖眞儀」 의례에는 합문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는, 합문정이 대관전(건덕전) 전문과 합문으로 위요된 공간이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한림원이 건덕전의 서쪽에 있었으므로, 각종 연회 때 왕의 임시휴게소가 설치되는 閤門廳⁵⁸⁾은 합문정의 동쪽에 위치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건덕전-전정-전문-합문정-합문의 순서로 시설물들이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일대는 회랑⁵⁹⁾으로 위요된 日자형태의 배치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합문은, 中門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 좌우에



<그림 8> 회경전 및 건덕전 일대 배치 추정도(<그림 7> 위에 필자 작성)

도 출입구가 개설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크기와 제도는 좌우승천문과 거의 같고, 동덕문보다는 조금 작았다.⁶⁰⁾

「先王諱辰眞殿酌獻儀」에 의하면, 국왕이 대관전에서 내려 연을 타고 이빈문(회동문) 밖으로 나온다.⁶¹⁾ 임천각은 회동문 안에 있었으므로,⁶²⁾ 건덕전-전문(창덕문)-합문-회동문-태초문(태정문)의 순서로 건물들이 위치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회동문 바깥 서쪽에는 步廊이 있었으며, 그 앞쪽은 한 때 제왕들의 升降所로 사용되기도 하였다.⁶³⁾

이상으로 회경전과 건덕전 일대를 중심으로 발굴조사된 일부 건물지의 명칭을 확인과 배치를 복원해 보았다. 특히, 건덕전과 구정 사이에 건덕전문-합문-회동문이 위치하고 있었

55) 前問恭作, 앞의 논문, p.30.

56) 『高麗史』 卷第65 志19 禮7 賓禮 迎北朝詔使儀. 이 의례에서 북조 사신을 접대하는 객성은, 성종14(995)년에 예빈정을 개칭한 것이며(『高麗史』 卷第76 志30 百官1 禮賓寺), 靖宗 八年二月丙申의 기록에 다시 禮賓省이라는 명칭이 등장한다. 따라서, 위의 迎北朝詔使儀는 995년에서 1042년 사이의 기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7) 『高麗史』 卷第7 世家7 文宗1 九(1055)年五月癸亥 遣利州刺史蕭祿來冊王太子…太子迎命于閤門庭.

58) 주 31) 참조.

59) 『高麗史』 卷第65 志19 禮7 嘉禮 冊太后儀大觀殿上冊.

60) 『高麗圖經』 卷第4, 門闕 同德門.

61) 『高麗史』 卷第64 志18 禮6 凶禮 先王諱辰眞殿酌獻儀, …王降殿升臺出利賓門外….

62) 『高麗圖經』 卷第6 宮殿2 臨川閣.

63) 『高麗史』 卷第 67卷 志21 禮9 嘉禮 一月三朝儀 德宗三年六月癸巳·卷第20 世家20 明宗2·『高麗史節要』 卷之13 明宗光孝大王2 二十七年二月壬子.

다는 것을 규명하였는데, 이는 각종 의례 절차와 공간 이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도면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8>이다.⁶⁴⁾

3-3. 좌우승천문의 위치

좌우승천문을 비롯하여 회경전 전문과 승평문 사이의 배치에 대한 관련 기록은 다음과 같다(밑줄과 기호는 필자에 의함).

<사료 1> a)昇平門 卽王宮之正南門也 上爲重樓 旁起兩觀 三門並列 制益宏大 四阿 各有銅火珠爲飾 自門之內 左右分爲兩亭 皆曰同樂 矮牆幾百堵相屬 b)以至神鳳門 而門之制 又壯大於昇平矣 東曰春德 通世子宮 西曰太初 通王居備坐 c)又十餘步 卽闔闔門 乃王奉迎詔書之所也 左右兩挾有承天門 自是而上 山勢稍逼 中庭隘狹 去會慶殿門 不過數丈耳 d)昇平 神鳳 闔闔三門 制度文采 大抵相類 而神鳳爲冠… (『高麗圖經』 卷第4 門闕 昇平門)

<사료 2> a)同德 左右二門相對 其中卽昇平門也 形制略似殿門而極高 唯無臺觀 b)昌德 會賓 春宮 承休 其制與同德不異 特閣門與承天二門 差褊爾(『高麗圖經』 卷第4 門闕 同德門)

창합문과 좌우승천문의 위치관계를 알 수 있는 것이 <사료 1> c)의 「兩挾」이라는 내용이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세 문 사이의 위치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가능성을 전제한 후 그것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법을 취하고자 한다.

창합문과 좌우승천문의 위치관계에 대해서는, ① 회경전문 좌우에 좌우승천문이 위치했을 가능성, ② 창합문을 수 개의 칸으로 나누고 가운데를 창합문, 좌우를 승평문으로 사용

했을 가능성, ③ 창합문 남쪽 동서에 위치했을 가능성, ④ 창합문 북쪽 동서에 위치했을 가능성, ⑤ 창합문과 승천문이 동서로 나란히 위치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사료1> c)에 의하면, 회경전문은 좌우승천문 위쪽에 위치한 별개의 문이다. 따라서 ①의 가능성은 제외할 수 있다.

<사료 1> d)에서 창합문의 제도를 승평문 및 신봉문과 비교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사료 2> b)에서는 창덕, 회빈, 춘궁, 승휴, 동덕 문은 서로 다르지 않지만, 합문과 승천문이 조금 작다고 하여, 창합문과 승천문이 별개의 건물로 존재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따라서 ②의 가능성도 제외할 수 있다.

3-4에서 검토하겠지만, 창합문 남쪽, 즉 신봉문 북쪽 좌우에는 태초문과 춘덕문이 마주 보며 위치하고 있었다. 만약 ③과 같이 승천문이 위치할 경우, 신봉문과 창합문 사이의 동쪽에는 좌승천문과 춘덕문, 서쪽에는 우승천문과 태초문이 위치하게 된다. 신봉문과 창합문을 연결하는 동서 담장에 두 개씩의 문이 설치되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덕전 일곽에서 수춘궁(좌춘궁)으로 향하는 의례에도 좌우승천문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③의 가능성도 제외할 수 있다.

<사료 1> c)에 의하면, 창합문 좌우 「兩挾」에 승천문이 있다. 이것은 宋代의 중국인에 의해 기록된 것이므로,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관련 기록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唐 房瑄의 『龍興寺碑記』에는 「…三門竝建以相挾…」이라 하여 별동의 세 문이 같은 담장에 동서로 나란히 위치하고 있는 것을 「相挾」으로 표현하고 있다. 『兩京新記』에는 「東京紫微宮城…正南應天門 門外觀相夾…」이라 하여, 문 앞쪽에 凹자 형태로 돌출한 觀을

64) 건물과 회랑의 규모는 북한의 발굴 및 장상렬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개략적으로 산정한 것이며, 회랑과 문의 경우 건물과 구분이 용이하도록 칸을 나누었다. 이하, 필자의 도면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相挾」으로 표현하고 있다. 金 中都에 대해 기록한 『攢轡錄』에는 「馳道之北卽端門十一間 曰應天之門 舊嘗名通天 亦開兩挾有樓…」라 하였다.⁶⁵⁾ 금 중도의 응천문 앞에는 당 동경 자미궁 정남문과 같이 앞쪽에 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 관과 응천문 좌우의 궁성벽이 만나는 곳에 樓가 설치되어 있었다.⁶⁶⁾ 즉, 응천문과 樓가 성벽을 공유하며 좌우로 나란히 위치하고 있는 상황을 「兩挾」으로 기록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가운데의 중심문의 뒤쪽 좌우에 문이나 꺾 혹은 루가 「相挾」하거나 「兩挾」한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창합문 북쪽 동서에 좌우승천문이 위치했을 ④의 가능성을 제외할 수 있으며, 창합문 좌우에 「兩挾」한 승천문은, 우승천문-창합문-좌승천문과 같이 좌우로 나란히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4. 태초문과 춘덕문의 위치

<사료 1> b)에 의하면 태초문은 국왕의 비좌로 통하며 춘덕문은 세자궁 즉, 左春宮으로 통한다. <표 1>을 보면 태자 관련 의례는, 선인전(선정전)-전문-대관전(건덕전)-전문-태정문(태초문)-麗景門-麗正門-麗正殿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태초문이 건덕전과 구정 및 좌춘궁을 연결하는 동선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임효현, 박용운, 김창현처럼 태초문-신봉문-춘덕문으로 나란히 위치시키면 위의 태자관련 의례는, 대관전(건덕전)에서 출발한 행

렬은 태정문을 지나, 구정으로 나갔다가 다시 의봉문(신봉문)이나 춘덕문을 들어가 여정전에 이르게 된다.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동선 체계가 된다.

<사료 1>의 b)와 c)는, 신봉문에 이어 춘덕문과 태초문을 기록한 후, 「又十餘步」한 곳에 창합문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신봉문을 들어선 후 태초문과 춘덕문이 위치하는 곳에 이르며, 그곳에서 다시 10여보를 간 곳에 창합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태초문과 춘덕문은 신봉문 북쪽, 창합문 가까이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태초문과 신봉문의 위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仲冬八關會儀大會日坐殿」 의례에서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국왕은 구정에 설치한 어전에서 의례를 참관한 후 의봉문 안에 정렬해 놓았던 평두련을 타고 태정문을 들어가 대관전에 이른다.⁶⁷⁾ 의봉문(신봉문) 안에 태정문(태초문)이 위치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즉, 태초문과 춘덕문은 신봉문 북쪽에 위치하면서, 서쪽의 건덕전 및 동쪽의 좌춘궁 일곽과 신봉문을 연결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신봉문, 태초문, 춘덕문 일대는, 고려정궁을 구획하거나 각 영역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케 하였으며, 각종 의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신봉문, 태초문, 춘덕문에 위숙군이 배치된 사실은,⁶⁸⁾ 이 일대가 건덕전과 여정궁, 회경전과 구정을 구분하고 차단하는 결절점이기도 하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한편 태정문(태초문) 근처에는 泰定門庫와 수구⁶⁹⁾가 위치하고 있었다. 태정문고의 기능과

65) 이상의 사료는, 蕭默, 『敦煌建築史研究』(文物出版社, 1989), pp.84-85 및 pp.113-116에서 재인용.

66) 당 장안 承天門, 당 동경 應天門, 북송 동경 宣德門 역시 출입문, 관(꺾), 루가 금 중도 應天門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郭黛姮主編, 『中國古代建築史』 第二卷(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01), p.363·第三卷(2003), p.99 및 p.122, 中國藝術研究院《中國建築藝術史》編寫組編, 『中國建築藝術史』上, (文物出版社, 1999), p.414 참조).

67) 『高麗史』 卷第69 志23 禮11 嘉禮雜儀 仲冬八關會儀 大會日坐殿, 王 初御宣仁殿…出御大觀殿…及御儀鳳樓上…王坐殿後聞辭獻壽…輿輦符寶等並還列儀鳳門內…次引四方貢物與諸蕃貢物 入自東仁德門駿奔過庭 出自西義昌門…王下殿御平兜鞵…入自泰定門 入大觀殿…

68) 『高麗史』 卷第83 志37 兵3 圍宿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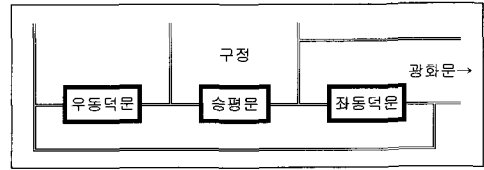
위치는 알 수 없으나, 태정문 수구는 태정문이 위치한 남북방향의 담장을 통과하는 광명천 위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3-5. 구정 일대의 배치

구정은 고려시대 각종 의례가 행해지던 중요한 공간이었다. 구정의 북쪽에는 신봉문, 남쪽에는 승평문이 위치하였다. 그런데 『고려도경』은 두 문을 「矮牆」이 연결하고 있다(<사료 1>)고한 반면, 『고려사』에는 「毬庭左右廊」이라고 하여 서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⁷⁰⁾

『고려사』 「예지」에는 일부의 의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1138년 5월에 개칭된 건물 명칭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서궁이 고려를 방문한 1123년 이후에 담장이 廊으로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1059년 8월 「毬庭廊下」에서 庶老 등을 위해 주연을 배설하였다⁷¹⁾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서궁이 고려를 방문하기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구정의 동서랑은 의례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⁷²⁾ 이러한 구정 동서랑의 동쪽에는 仁德門, 서쪽에는 義昌門이 위치하여, 각종 의례 시 공물과 사람들의 출입구로 이용되었다.⁷³⁾ 승평문 동쪽에는 八關司가 위치하고 있었다.⁷⁴⁾ 팔관사는 구정에서 진행되는 팔관회를 담당하는 팔관보로 추정되므로,⁷⁵⁾ 좌우 동락정과 함께 구정 내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 9> 승평문과 동덕문의 관계 추정도

3-6. 승평문과 동덕문 일대의 배치

동덕문은 『고려도경』에만 기록되어 있다.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앞에 인용한 <사료 1> a)와 <사료 2> a)를 근거로 하여 승평문 좌우에 나란히 좌우동덕문을 위치시키고 있으며, 고유섭만이 구정을 둘러싼 남북방향 담장에 위치시키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견해에 따라 순천관을 나서, 왕부에 이르러 광화문을 들어간 다음 좌동덕문을 들어가서 승평문 밖에 이르렀다⁷⁶⁾는 서궁 일행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자. 선행 연구의 좌동덕문 위치에 따르면, 좌동덕문을 들어가면 구정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서궁은 좌동덕문을 들어가서 승평문 밖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다. 결국, 좌동덕문을 통해 구정으로 들어갔던 서궁 일행은, 다시 좌우동덕문이나 승평문을 나와서 승평문 밖에 이르렀다는 것이 된다. 이러한 불합리한 동선의 문제는, 승평문과 좌우동덕문 일대를 <그림 9>와 같이 추정할 경우 해결할 수는 있다.

그런데, 승평문에 대하여 「三門並列」로 기록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동덕문에 대해서는 「左右二門相對」이라고 하여 분명하게 차이를 두고 기록하고 있다(<사료 1·2>의 a) 참조). 이러한 「三門並列」과 「二門相對」가 동일한 모습을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을까.

아래의 기록을 보자.

69) 『高麗史』 卷第83 志37 兵3 看守軍·圍宿軍.

70) 『高麗史』 卷第68 志22 禮10 嘉禮 老人賜設儀·卷第69 志23 禮11 嘉禮雜儀 仲冬八關會儀.

71) 『高麗史』 卷第8 世家8 文宗2 十三年秋八月癸酉.

72) 『高麗史』 卷第55 志9 五行3 土 忠肅王 五年二月己亥.

73) 『高麗史』 卷第68 志22 禮10 嘉禮 儀鳳門宣赦書儀·卷第69 志23 禮11 嘉禮雜儀 仲冬八關會儀 大會日坐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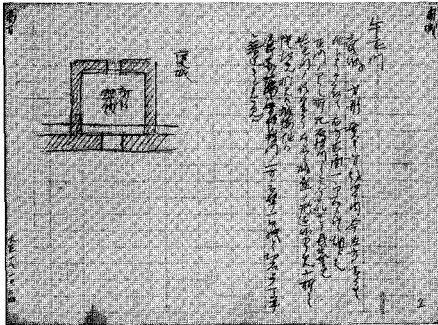
74) 『高麗圖經』 卷第16 官府 臺省.

75) 김창현, 앞의 책, p.227.

76) 『高麗圖經』 卷第25 受詔 迎詔 …候詔書出館(順天館)…至王府入廣化門次入左同德門至昇平門外…入神鳳門至閭闔門外…止會慶殿門外…

<사료 3> 宣義門 卽王城之西正門也…其正門二重 上有樓觀 合爲瓮城 南北兩偏 別開門相對…(『高麗圖經』卷第4 門闕 宣義門)

宣義門은 왕성의 정서문이며, 웅성과 더불어 「南北」 양편으로 「相對」하여 따로 문을 내었다는 내용이다.



<그림 10> 開城 午正門 조사카드 (關野貞, 정리번호 08-034)

오정문(선의문)의 웅성은 성문을 모나게 감싸고 그 가운데에 웅성문을 두었으며,⁷⁷⁾ 이러한 선의문의 모습은, 1923년 關野貞이 작성한 「오정문」 조사카드⁷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선의문과 웅성문은 남북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선의문의 웅성문처럼 두 문이 「相對」하고 있었다는 좌우동덕문 역시, 승평문의 남쪽 좌우에 서로 마주보며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승평문이 고려정궁의 가장 남쪽에 위치하면서 궁성의 외부와 면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순천관을 출발한 서궁 일행이 좌동덕문을 「들어간」 후 승평문 「밖」에 이르렀다거나,⁷⁹⁾ 어사

대가 좌동덕문 「안」에 있다는 기록은,⁸⁰⁾ 승평문과 좌우동덕문으로 폐쇄된 공간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표현이다. 다시 말하면, 승평문이 고려정궁의 남문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남쪽에 좌우동덕문, 그리고 어사대를 포함하여 수백 칸의 낭옥⁸¹⁾에 의해 구획된 영역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좌동덕문 안에는 어사대가 위치하고 있었으며, <사료 1> a)를 통해, 승평문 근처에는 兩觀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觀은 闕이라고도 하였으며, 문의 좌우 담장이거나 성벽에 위치하다가 점차 그 남쪽으로 이동하여, 문과 함께 凹자 형태를 이루었다.⁸²⁾ 唐長安 太極宮 承天門의 양관, 大明宮 含元殿의 翔鸞·栖鳳閣, 北宋 東京의 宣德門 左右闕⁸³⁾을 통해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승평문 앞에 「旁起兩觀」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兩觀은, 승평문 앞쪽 좌우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어사대는 승평문과 마주하며 위치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우춘궁은 승평문 밖 어사대 서쪽⁸⁴⁾에 있었다.

좌춘궁은 회경전 동쪽 춘덕문을 들어선 곳에 위치하였으며, 大和門, 元仁門, 育德門이 있었다.⁸⁵⁾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서는 수춘궁을 麗正宮⁸⁶⁾으로 개칭한 사실과, 여경

79) 주 76) 참조.

80) 『高麗圖經』卷第16 官府 臺省, 御史臺 在左同德門內….

81) 『高麗史』卷第6 世家6 靖宗·卷第53 志7 五行1 火·『高麗史節要』卷之4 靖宗容惠大王 六年二月庚寅, 昇平門廊屋數百間災 延燒御史臺.

82) 이상해·한동수·이주행·조인숙 옮김, 『중국고전건축의 원리』(시공사, 2000), pp.90-91. 및 諸橋徹次, 『大漢和辭典』卷十(大修館書店, 1985(1959)), p.364. 關野貞에 대해서는 蕭默의 연구(앞의 책, pp.95-120)가 자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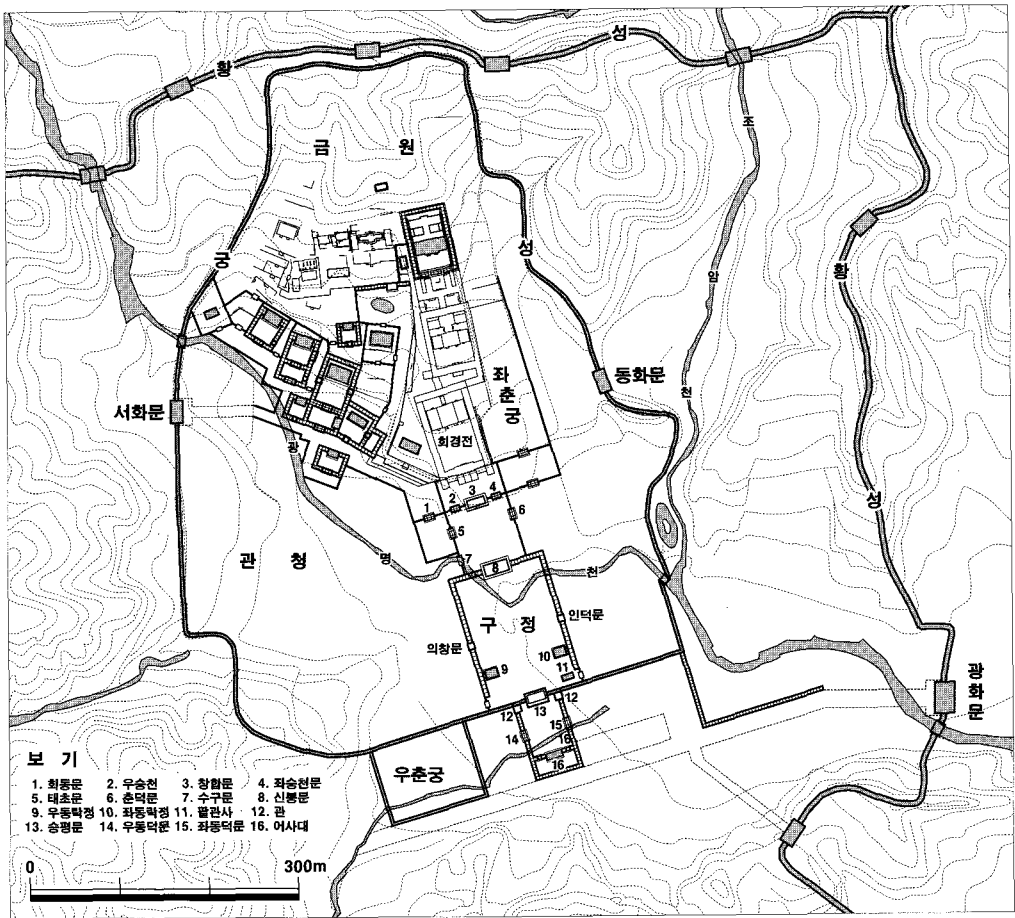
83) 劉敦楨, 『中國古代建築史』(中國建築工業出版社, 1984), pp.191-121 및 郭黛姍主編, 앞의 책, 第二卷, pp.360-381·第三卷, pp.97-108 참조.

84) 『高麗圖經』卷第6 宮殿2 左春宮.

85) 『高麗圖經』卷第6 宮殿2 左春宮.

77) 전용철, 「고려의 수도 개성성에 대한 연구(2)」(『역사과학』 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0), p.26.

78) 자세한 내용은, 藤井惠介·早乙女雅博·角田眞弓·李明善, 『東京大學綜合研究博物館 所藏 關野貞コレクシオン フィールドカード目録』(東京大學綜合研究博物館, 2004), pp.1-5를 참고하기 바람.



<그림 11> 고려정궁 배치 추정도(지형도, 지적원도, 발굴조사 도면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문, 여정문, 여정전 등이 확인된다. 이 외에 위위시, 대부시, 사채시, 대복시, 소부감, 상약국, 상식국, 상의국, 상사국, 상고국, 액정국, 태의감, 중상서, 수궁서, 내고, 어주, 다방, 내시원 등도 궁성 내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⁸⁷⁾ 대부분은 구정의 동서쪽에 분포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광명천이 북쪽의 정전, 편전, 내전 등과 남쪽의 관청 일대를 구분하는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으로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 다음 쪽의 <그림 11> 「고려정궁 배치 추정도」이다.⁸⁸⁾

4. 종합검토

고려시대 정궁의 배치에 대한 검토는, 그것이 지닌 건축적 특징과 건축사적 위상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가 된다. 따라서 본 논문

86) 여정궁에서는 「冊太后儀」도 진행되었다. 태자궁과 태후궁이 인접하여 위치했을 가능성, 태후궁과 태자궁의 명칭 같았을 가능성, 태자궁이 여정궁으로 개칭되기 전 태후궁의 명칭이 여정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87) 김동욱, 앞의 논문, p.28 및 김창현, 앞의 책, pp.258-259, 주143).

88) 궁성(문)과 황성(문)의 위치는 「지형도」를 바탕으로, 전룡철, 「고려의 수도 개성성에 대한 연구(1)」, 『역사과학』 제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0), pp.19-20·고유섭, 「養怡亭과 香閣」(『韓國美術史及美學論攷』, 通文館, 1963년), p.178 등을 참고하여 작도한 것이다.

문에서는, 문헌사료, 선행 연구, 발굴조사 도면, 「지형도」, 「지적원도」를 이용하여, 궁성 내 고려정궁의 배치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회경전과 그 서쪽 일대에서 발굴 조사된 건물지의 명칭을 비정하고 배치를 복원할 수 있었다.

특히, 건덕전과 합문, 회동문, 태초문, 춘덕문의 위치 관계, 구정과 승평문 일대의 배치를 규명하였다. 이것은, 고려시대 각종 의례의 동선 및 공간의 활용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려정궁의 배치는, 무엇보다 광범위하고 정밀한 발굴조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공개된 고려정궁 일대의 위성사진을 통해, 광명천과 신봉문 이북 지역 및 좌춘궁 일대를 제외한 나머지 정궁 지역에 시가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구정, 법왕사, 東池 일대, 서남에서 동남에 이르는 궁성 벽이 이미 상당부분 훼손·파괴된 것을 의미하며, 이후 진행될 발굴 조사의 성과를 불확실하게 한다. 결국, 고려정궁이 지닌 건축적 특징과 건축사적 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과 입장의 연구를 통한 결과의 종합과 수렴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 역시 이러한 수렴 과정의 하나로서, 연구의 결과는 고려정궁의 배치를 보다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고려정궁의 배치는, 궁성 및 황성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본 연구 과정에서 작성한 「기본도면」을 이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필자의 연구 과제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1. 『高麗史』
2. 『高麗史節要』
3. 『高麗圖經』
4. 林孝憲, 『松京廣攷』, 1832.
5. 李智冠,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2, 伽山佛教文化研究院, 2000(1995).
6.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0, 외국문종합출판사, 1991.
7. 朝鮮總督府, 『一萬分一尺縮 開城 地形圖』, 1918.
8. 『京畿道 開城郡 松都面 滿月町·高麗町 地籍原圖』, 1913.
9.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官報』 第2507號, 1935.
10. 高裕燮, 『韓國建築美術史草稿』, 考古美術資料 第六輯, 考古美術同人會(대원사), 1964(1999).
11. 高裕燮, 『高裕燮全集』 4, 通文館, 1993.
12. 朴龍雲, 『고려시대 開京 연구』, 一志社, 1996.
13. 김창현, 『고려개경의 구조와 그 이념』, 신서원, 2002.
14. 리화선, 『조선건축사 I』, 발언(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3.
15. 이상해·한동수·이주행·조인숙 옮김, 『중국고전건축의 원리』, 시공사, 2000.
16. 蕭默, 『敦煌建築史研究』, 文物出版社, 1989.
17. 郭黛姮主編, 『中國古代建築史』 第二·三卷, 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01·2003.
18. 中國藝術研究院《中國建築藝術史》編寫組 編, 『中國建築藝術史』 上, 文物出版社, 1999.
19. 劉敦楨, 『中國古代建築史』, 中國建築工業出版社, 1984.
20. 諸橋轍次, 『大漢和辭典』 卷十, 大修館書店, 1985(1959).

21. 藤井恵介・早乙女雅博・角田眞弓・李明善, 『東京大學綜合研究博物館 所藏 關野貞コレクション フィールドカード目録』, 東京大學綜合研究博物館, 2004.
22. 前間恭作, 「開京宮殿簿」, 『朝鮮學報』, 第26輯, 朝鮮學會, 1963.
23. 김동욱, 「11,12세기 高麗 正宮의 건물구성과 배치」, 『건축역사연구』 제6권 3호 통권13호, 한국건축역사학회, 1997.
24. 전용철, 「고려의 수도 개성성에 대한 연구(2)」, 『력사과학』 제3호, 과학백과사 진출판사, 1980.
25. 장상렬, 「만월대 장화전건축군의 배치와 거기에 쓴 자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제4호, 사회과학원출판사, 1986.
26. 장상렬, 「고려왕궁-만월대 건축에 쓴 측도기준」, 『고고민속논문집(Ⅱ)』,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27. 장상렬, 「만월대 회경전건축군에 쓴 자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제3호, 사회과학출판사, 1989.
28. 정찬영, 「만월대유적에 대하여(1)」, 『조선고고연구』 제1호, 사회과학출판사, 1989.
29. 한인호, 「만월대중심건축군의 원덕전터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제3호, 사회과학출판사, 1994.
30. 리창언, 「만월대의 동지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제3호, 사회과학원출판사, 1999.

A Study on the Restoration of the Layout of the Main Palace of Goryeo Dynasty

Woo, Seong-Hoon

(Graduate Student, The University of Tokyo)

Lee, Sang-Hae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Abstract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and historical positioning which the historical architecture will be understood better through collecting results from researches which was done on various points of views and positions. Therefore, a study on the layout of the main palace of Goryeo Dynasty also becomes a prerequisite for understanding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and historical positioning which it possesses.

However, the reality is that as the results from the excavation and preceding researches were not integrated together, the understanding of the layout of main palace is remaining on a partial and conceptual level.

Therefore, this paper attempted to review in overall the restoration of the layout of the main palace of Goryeo Dynasty using historical documents, precedent researches, excavation maps, topographical map and cadastral maps. Consequently,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name of some of the ruins and restore the location and layout of other building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presented above, will become a basis for understanding the layout of the main palace of Goryeo Dynasty in more realistic and abstract way. Furthermore, it could be used as a fundamental data for related researches.

Keywords : Goryeo dynasty, Capital, Gae-gyong, Gae-song, Main Palace, Layout, Restoration
